

##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자

### 동북아 금융허브의 논의배경

- 치열한 국가간 경쟁 속에 처해있는 우리나라는 새로운 발전모델과 성장 동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며, 이러한 시의성에 따라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자는 발전비전이 제시됨
  - 중국의 급성장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과 세계시장 점유율이 잠식되고 있으며,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, 일본의 기술·자본 사이에서 너트크래커(Nutcracker)의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
- 한편 한·중·일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은 거대한 경제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EU, NAFTA와 함께 이미 세계 3대 교역권으로 부상하였으며, 이 지역에서 물류·금융서비스 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됨
  - 이 지역은 세계 GDP의 20%와 물동량의 30%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·중·일 3국간의 역내 교역규모도 지난 1990년 960억 달러에서 2001년 3,300억 달러로 10년 사이에 3.4배로 확대됨
  - 외국인의 직접투자·증권투자도 활발해지고 있으며, 높은 성장잠재력과 투자여건 개선노력 등으로 더욱 가속될 것임
  - 따라서 금융수요도 급속히 증대되어 지역금융 허브의 출현을 요구하고 있지만 역내 금융중심지 구축노력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음

### 동북아 相生을 위한 금융허브가 필요

- 동아시아 지역은 금융시스템 취약과 자본시장의 미성숙으로 환투기를 비롯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의 차단을 위하여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

- 역내자금이 구미 선진금융기관에 예치된 후 그들의 금융중개기능에 의하여 아시아로 환류되고 있으며, 단기외화차입 자금을 자국통화표시 장기투자로 운용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의 「기간」 및 「통화」 구조가 이중으로 불일치(mismatch)되는 리스크를 안고 있음
- 또한 환투기와 자국통화 가치를 방어하고 외환위기사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 기회가 봉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나, 보유규모가 과다하여 상당한 비용이 수반됨
  - 미국, 스위스, 프랑스, 독일 등은 거대한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음
- 따라서 외환위기 재발방지, 금융중개 수익 제고, 장기자금의 안정적 확보, 금융·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역내저축이 역내에서 중개·활용될 수 있도록 동북아 금융허브가 발달되어야 할 것임
-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프라의 확충을 통하여 물류뿐만 아니라 금융허브로 발전할 잠재력을 보유

### 금융선진화는 동북아 금융허브의 조건

- 단기적 외국자본의 유치는 금융·외환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선진금융시스템을 시급하게 구축해야 할 것임
- 취약한 금융시스템은 내자·외자유치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금융세계화의 혜택과 국제금융에의 접근도 제한하여 지역 금융허브, 나아가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에 제약으로 존재함
- 네덜란드, 영국, 미국 등이 선진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켜 선진국으로 부상하였으며, 금융세계화에 참여하여 세계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누렸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

- 금융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금융여건뿐만 아니라 경제·정치적 여건이 성숙되고 또한 외국의 신뢰가 수반되어야 함
  - 건전한 재정제도, 화폐가치의 대내외 안정, 중앙은행의 국내 금융제도에 대한 규제·감독, 국제금융의 안정적 관리 등 금융여건이 구비되고 이 속에서 혁신적이며 경쟁력 있는 국내금융, 국제금융, 효율적인 증권시장이 발달되어야 함
  -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정부, 독립적인 사법제도, 사유재산권의 보장, 지도층의 금융에 대한 이해 등도 필요한 요소임
  - 나아가 새로운 금융제도 도입, 신금융상품 개발, 새로운 시장창출 등이 가능하도록 금융혁신·개혁이 수반되어야 함. 이러한 배경에서 외자가 유입되고 금융센터로 부상할 모티브가 형성됨
- 동북아지역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기존 국제금융중심지에 이어 이 지역에 금융센터가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런 경제적 현상임
  - 또한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런던, 뉴욕과 같은 세계금융중심지뿐만 아니라 지역금융중심지, 틈새시장, 역외금융센터 등 다양한 국제금융시장이 출현하여 보완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도 기회임
-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성장할 기회는 열려 있는바 한·중·일 등에서 누가 먼저 금융선진화를 이룩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느냐가 금융허브 형성의 관건임

### 금융허브 건설을 위한 과제

- 우리나라는 다국적기업과 거대 금융기관에게 한국이 동북아에서 「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」라는 명성을 얻어야 함
  - 중국 상해와 홍콩은 사회주의 특성상 정부통제·규제 등으로 금융시

- 시스템의 선진화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함
- 일본은 장기불황이 계속되고 있으며, 금융산업이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금융개혁은 부진한 상황임
  - 싱가포르의 공간적인 괴리와 소규모 도시국가란 한계로 인하여 동북아 금융허브 기능을 담당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
- 그렇지만 지리적 이점 등 기회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 여건은 홍콩·상하이·싱가폴·동경보다 열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
-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①조세제도, 고율의 소득세·법인세, ②외환관리, ③노조와 노동시장의 경직성, ④이민정책 및 까다로운 외국인 노동허가, ⑤영어능력, 생활환경, 국가 이미지 등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여건이 미흡하다고 평가함
  -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(IMD)의 국제경쟁력 보고서에서도 외국인 직접투자, 외국기업 차별, 노사관계·문화의 개방성 등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30개국(인구 2000만 이상)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였음
-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동북아 금융허브, 물류중심, 비즈니스 중심의 비전과 현실간에 심한 괴리가 있으므로 다음이 구비되어야 할 것임
- 정부는 평화적이고 원칙·질서가 존중되는 노사관계를 확립하고, 조세제도에서는 세율을 확대하되 한계세율은 낮추는 개혁을 수행해야 할 것임
  -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 법률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나라로 시장개방을 통하여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고 외국 법률사무소의 국내활동을 보장하여 규제·법률체계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임
    - 외국인이 대규모 국제금융거래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계약을 하지

않고 대부분 홍콩에서 한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

- 또한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이 필요하며, 따라서 어메니티를 보강하고 관련 이민정책도 개선해야 함

###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로

- 국제금융중심지는 런던, 뉴욕 등과 같이 금융인프라, 고급인력 등 종합적 비즈니스 환경이 잘 구비되어 있는 대도시의 중심부가 적합하며, 이러한 도시형성이 경쟁의 핵심요소임
  -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금융활동은 전문인력의 대면접촉과 인적 네트워크를 위해 공간적으로 집중됨
  - 또한 금융업무와 법률서비스, 회계, 정보통신, 교육기능이 금융서비스 클러스터를 형성하므로 세계의 금융중심지는 경제수도의 도심 일부지역에 집적되는 경향이 있음
- 국제금융업무 유치에서 지역별 분산투자나 금융업무의 역할 분담을 위하여 지방도시에 금융센터를 조성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낮추므로 가장 유망한 지역·도시를 선택하고 거국적으로 집중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
- 서울은 기업환경, 기술인력, 근로자의 질, 첨단 IT기술의 집적, 문화·생활환경 등에서 동북아의 핵심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임
  - 그렇지만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·물류센터 등의 운영을 위한 입지순위분석에서 서울은 홍콩, 싱가포르, 상하이에 뒤지는 상황임
  - 따라서 서울이 이들 경쟁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

- 서울은 도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청계천 복원지역과 연계하여 광고 일대를 국제금융업무단지로 지정·개발하고 국제금융기구, 다국적 기업의 아태지역본부, 외국금융기관 및 금융관련 서비스를 유치해야 할 것임
  - 이 지역에는 이미 다수의 외국 금융기관 및 금융관련 서비스가 밀집해있으며 청계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도심이 편리하고 쾌적한 어메니티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임
  
-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성패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범국가적 노력에 달려있는바 최적지를 선정·집중투자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, 또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임
  - 국제금융 중심지는 일시적인 노력과 구호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, 또한 선택적인 사항이 아닌 반드시 실현해야 할 생존전략임
  - 현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도시들이 경쟁하고 있는바 우리가 상하이나 도쿄에 비해 비교우위와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도 그리 길지 않음.
  - 국제금융 중심지로 부상하는데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둘러서 계획을 세우고 당장 시작해야 할 것임

이재웅 ·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
cleee@skku.ac.kr